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⑳ 신라 선승의 구도수행 1



▶한줄요약
신라 선승들은 수행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다른 선지식을 찾아갔다.

선지식 찾아 중국까지 간 신라 선승들

1. 수행법의 혁신

불교 수행법에 대한 견해와 실천은 다양하게 전개됐다. 출발점인 부처님 깨달음의 방법과 과정은 니까야 계통 경전에 고스란히 담겼다. 안이비설신의 등을 통해 지각을 하되, 있는 그대로 지각함으로써 육근, 육경, 육식에 애착하지 않고, 촉(觸)에 애착하지 않으며, 수(受)에 애착하지 않는다. 환락과 탐욕을 여의고 갈애를 버린다.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정견(正見)을 이루고 8정도를 완성한다. 4념처(四念處), 4정근(四正勤) 등이 포함된 37도품(三十七道品)을 수행한다. 색계 사선정(四禪定) 무색계 사선정과 상수멸정(想受滅定)을 이룬다. 이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달마전법에 의해 시작됐다는 중국선불교는 이런 수행법을 혁신했다. 혁신은 단순화였다.

2. 당으로 간 신라 선승들

선불교 수행자는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고 선지식의 점검을 받았다. 신라 선승들은 수행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다른 선지식을 찾아갔다. 선지식과의 선문답을 깨달음으로 가는 자량으로 삼아 더 치열하게 수행했다.

중국 선지식을 만나기 위한 구법 여행을 떠났다. 당의 선지식은 먼 신라로부터 찾아온 제자를 제접하며 행동 하나 말투 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가 한 마디 말 한순간 몸짓으로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신라 선승은 인가를 받고 법인을 계승한 이후에도 중국의 명산과 유서 깊은 수행처를 찾아가서 수행했다. 이 운수행각(雲水行脚)의 길을 따라가면 그들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 엿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막연한 암시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마른 쑥이 흩날리듯 떠돌아다니며 발길을 맡기니,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다. 곧 순례하는 일을 일삼아 이름난 산을 찾아 높은 산을 우러러보았다."(창원 봉림사 진경(眞鏡審希, 855~923)대사 탑비문)는 식이다.

대부분 인도 구법승이 그랬듯, 중국 구법승 중에는 중국서 입적한 경우가 있었다. 원측(圓測, 613~696), 무루(無漏), 무상(無相, 684~762) 등이다. 나머지 대부분 중국 구법승은 큰 뜻을 품고 신라로 돌아왔다.

3. 남종선과 북종선

신라 선승들이 중국으로 간 때는 조사선[남종선]이 불교 수행을 주도하고 있었다. 도신(道信, 580~651)과 홍인(弘忍, 601~674)은 사제 간 법의 계승을 강조하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을 이루어 선종의 모태가 되게 했다. 탁발 대신 집단 농업생산 활동을 했다. 혜능(惠能, 638~713)은 본래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임을 보이는 돈오 남종선을 성립시켰다. 신수(神秀, 606~706)는 황실의 적극적 지원 하에 점수설을 근간으로 한 북종선을 이끌었다. 동산법문의 남종선과 신수의 북종선의 양립 상황에서 하택 신회(何澤神會, 684~758)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회는 5조 홍인의 참된 후계자는 자신의 스승인 혜능이고 신수는 방계일 뿐이라 주장했다. 신회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선 수행법도 정립했다.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無明)이 증장되고, 지혜가 많고 선정이 적으면 사견(邪見)이 증장되는 바, 선정과 지혜가 균형을 이룰 때 불성을 본다고 가르쳤다.

4. 신라 무상 중국을 가르치다

무상(無相, 684~762)은 성덕왕의 셋째 아들이었다. 혼인을 강요당한 막내 누이동생이 출가를 실행하기 위해 자기 얼굴을 칼로 자해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기도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중국에 가서는 손가락을 태우는 정성으로 처적(處寂, 669~736)의 가르침을 받는다. 2년간 처적의 법을 전수받고 처적이 입적하자 사천성 천곡산(天谷山)으로 들어가 처절한 고행을 감내하며 수행한다. 공부가 깊어지자 사천성 안으로 들어가 낮에는 무덤 옆에서 밤에는 나무 밑에서 수행했다. 소유와 집착을 최소화하고 인욕을 체득하는 철저한 두타행을 실천했다. 그를 우러러본

신라 선승, 인가 후 중국 유학
무상 두타행, 청규 전통 탄생
도의, 37년 구법 남종선 원력

사천성 사람들이 정중사(淨衆寺)를 지어 주석하게 했다. 무상의 두타행 실천은 마조 도일-백장 회해 등으로 이어지면서 '청규'(淸規)의 전통을 만들어냈다.

무상은 '나무아미타불'을 길게 염송하는 인성염불(引聲念佛)을 수행의 출발과 바탕으로 삼았다. 인성염불 끝에 한 기운의 숨을 다 내 쉬어[盡一氣] 소리를 끊고[絶聲] 부름을 멈추었을 때[停念] 무억, 무념, 막망의 삼구를 설하고 염했다. 삼구는 무억(無憶, 과거 바깥일에 대한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 것), 무념(無念,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막망(莫妄,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 것)이다.

인성염불은 오경전(五更轉)으로 발전됐다. 초경(저녁 7~9시)에 '얕은 염불'로 시작하여 이경(9~11시)에 '깊은 염불', 삼경(11~1시)에 '얕지도 깊지도 않은[半] 염불', 사경(1~3시)에 '힘찬[遷] 염불', 오경(3~5시)에 '빠른[催] 염불'로 '전환[轉]'하며 나아가게 했다. 오경의 한 마디가 끝나고 다음 마디로 들어가기 전에 삼구를 염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오직 현재의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오경전 수행이 포섭한 것이다.

무상은 수계의식이 끝나면 대중들에 7일 혹은 14일간 좌선을 하게 했다. 인성(引聲, 소리를 끌어당김)하고 염불(念佛, 부처님 명호를 부름)하고 좌선(坐禪)하는 것은 '소리' - '명호' - '실참'으로 이어지는 무상의 독창적 '인성염불선'이었다.



도의(道義, 750무렵~825)는 37년간 구법여행을 끝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무위임운(無爲任運)의 남종선[조사선]을 펴고자 했다. 사진은 도의 스님 진영.

무상은 스스로도 치열한 수행을 계속하여, 좌선을 시작하면 5일, 7일, 14일 동안 계속했다. 중국에서 28년을 머문 무상은 정중사에서 77세로 입적했다. 무상에 의해 성립된 정중종(淨衆宗)은 혜능이나 신수의 선풍과 대등한 역할을 하여 티베트까지 알려졌다. 홍인(弘忍)-지선(智詵)-처적(處寂)으로 이어진 법맥을 받아, 하택 신회(何澤神會),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 서당 지장(地藏, 735~814)에게 전했다. 신라 구산선문의 개조자(開祖者)인 도의, 홍척, 혜철, 범일, 무염, 현욱 등이 서당을 비롯한 마조 계통의 법맥을 받아온 것은 그 법계가 신라 출신 무상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무상이 운남성 공죽사(笻竹寺)와 강서성 동림사(東林寺) 등의 나한당 속에 '무상공존자'(無相空尊者, 455번째)란 존호로서 모셔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여섯 조사[六祖] 중 달마와 무상만이 500 나한상으로 모셔진 것이다.

5. 때 아닌 선종 수용

법랑(法朗, ?~755)은 중국으로 갔다가 4조 도신(道信, 580~651)의 법인을 받고 귀국하여 신라에 선을 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신행(神行, 704~779)에게 법을 전했다. 신행은 호거산에서 법랑을 섬기면서 선 수행에 전념했지만 법랑이 3년 만에 입적하자 중국으로 떠났다. 신행은 북종선의 3대인 지공(志空) 문하로 들어가 3년 만에 도력을 인정받았다. 신행은 법랑(法朗, ?~755)을 통해 4조 도신(道信)의 법맥을 이었고, 5조 홍인(弘忍)에서 신수(神秀)-보적(普寂)-지공(志空)으로 이어진 북종선의 법맥도 함께 이은 것이다. 신행이 신라로 돌아와 북종선을 펴고자 했지만 역시 여의치 않았다. 신행의 선이 중앙으로 진출한 것은 제자 삼륜(三輪)에 의해서였다.

6. 도의의 은둔과 추존

중국으로 간 도의(道義, 750무렵~825)는 784년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 혜능(惠能)을 모신 조계산 조사당을 참배했을 때는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적을 보았다. 서당지장(智藏)의 가르침을 받고 심인을 받았다. 백장 회해(懷海)를 찾아가니 회해는 "강서의 선맥(禪脈)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라며 축원했다.

도의는 우연하게도 진감 혜소(慧昭, 774~850)를 만난다. 도의와 혜소는 장차 신라로 돌아가 남종선을 일으키자고 다짐하며 도반이 되었다. 도의는 귀국하지만 혜소는 3년을 더 체류한다.

도의는 821년 37년간 구법여행을 끝내고 귀국했다. 도의는 무위임운(無爲任運)의 남종선[조사선]을 펴고자 했다. 무위임운이란 사량분별의 조작을 멀리하고 생사의 법을 초월하여 걸림과 집착이 없는 본래심으로 살아가려는 것이다. 도의는 이런 남종선의 가르침을 본래성불의 전제에서 펼치려 했지만, 이 무렵 신라불교의 분위기는 경전의 교설을 따르는 것이 대세였고, 화엄관법(華嚴觀法)과 〈관무량수경〉을 근거로 한 16관법(觀法)이 유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신라 사람들은 무위임운(無爲任運)의 종지를 배우려 하지 않았다. 도의를 마구니의 말[魔語]을 퍼뜨리는 자라 의심하고 비웃었다.

도의는 이국생활 37년 내내 당당한 남종선을 신라에 펼치려는 일념만을 가졌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마구니로 몰리는 푸대접과 봉변을 당하면서 남종선의 때가 아직 아님을 확인했다. 미련 없이 머나먼 설악산 진전사(陳田寺)로 가 운둔했다. 40년 더 수행자로 살아가며 염거(廉居, ?~844)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보조 체징(體澄, 804~880)이 염거를 스승으로 모셨다. 체징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몸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지 않으며 수행했다. 체징의 뜻과 기개에 짝할 이가 없다고 본 염거는 체징에게 법인을 전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선지식을 찾던 체징은 온 누리의 성상(性相)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구법의 발길을 돌려 돌아왔다. 장흥 가지산 가지산사[오늘날 보림사]에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열고 선풍을 크게 떨쳤다. 체징은 자신을 가지산파 제3조로, 스승 염거를 제2조로 하고, 도의를 가지산파의 제1조 개산조의 자리에 앉혔다. 도의의 못다 이룬 뜻이 3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의의 선법이 법손 체징에 의해 꽃을 피웠다. 선종에 대한 마구니의 저주가 풀리는 데 40년 시간이 걸린 셈이다.

체징의 법맥은 선각 형미(先覺逈微, 864~917)에게 계승되고, 형미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소백산사 진공0운(眞空0運)은 도의를 사숙한 제자로 인정됐다. 체징은 형미를 보자마자 "옛적에 우리 이별한 것이 좀 오래된 성싶은데 이제서야 찾아오니 어찌 그리 늦었는가?"라며 반갑게 제자로서 받아들였다. 조은사(祖恩師)의 마음을 받들어 간절히 보은한 체징은 제자를 받아들일 때도 이처럼 전생의 인연을 끌어와서 따뜻한 운명의 힘을 실어 주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종도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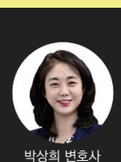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정성윤 변호사 민사/가사 전문


정동윤 변호사 형사/부동산 전문


박상희 변호사 이혼/형사 전문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를 위한 고문변호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2022 내소사 산사음악회
사람과 자연에 休(휴식)를 주다
2022년 11월 5일(토) 오후2시 / 부안 능가산 내소사

프로그램
· 산사음악회 : 오후2시
· 불교문화체험 : 오전11시-오후5시
· 부안군민공예체험 : 오전11시-오후5시

내소사홍보
· 내소사템플스테이 : 오전11시-오후5시

불교문화체험프로그램
· 전통차 체험
· 소원컵 연등 만들기
· 페이스 페인팅 체험

문의 063.583.7281

함께하는 아티스트


World Of Crown 국제 댄스대회 1위
미스몰리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아이돌 가수
박현빈


MBN 조선판스타(2021.10.30.) 우승자
김산옥과 도드리 국악단


원광대학교 대학원 문화음악학과
교수장소현 교수김문희 김고은 신민경